

JTBC '부부의 세계' 시청률 18.8% 파죽지세 '스카이 캐슬' 넘어설 듯



벼랑끝 부부 치절한 복수

JTBC '부부의 세계'

제2막으로 접어든 JTBC '부부의 세계'가 매회 자체 최고기록을 경신하다가 마침내 15%까지 돌파했다.

12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 JTBC에서 방송된 금토드라마 '부부의 세계'는 유료방송가구 시청률 18.816%를 기록했다. 2049 타깃 시청률은 9.0%로 집계됐다.

이는 방송 3주 만에 JTBC 역대 드라마 중 두 번째로 높은 시청률을 세운 '이태원 클라쓰' (16.5%)를 뛰어넘은 기록이다.

전날 방송에선 지선우(김희애 분)가 이태오(박해준)와 이혼하는 데 성공하지만, 2년 후 이태오가 여대경(한소희)과 함께 어엿한 부부 행세를 하며 고산사로 돌아오자 충격에 휩싸이는 지선우 모습이 담겼다. 원작 영국 드라마에선 시즌 2회 오프닝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부부의 세계'는 회마다 '더 풀어낼 내용이 있나' 싶을 정도로 빠른 이야기 전개와 파격에 이른 부부의 심리를 섬세하게 그려낸 점 등이 인기 비결로 꼽힌다.

지선우가 복수를 위해 이태오의 친구이자 이웃집에 사는 손재혁(김영민)과 자는 것을 포함한 자극적인 '막장' 내용도 있지만, '김치 싸대기' 같은 과장된 액션이 없고 인상 깊은 대사와 배경음악으로 고급스러운 심리극 분위기를 자아낸다.

특히 전날 방송된 6회는 지선우와 박해준이 아들 양육권을 차지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모습을 그려지면서 협잡과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정치 스릴러를 보는 듯했다.

현재 추세를 유지한다면 '부부의 세계'는 비지상파 드라마 최고 시청률을 보유한 'SKY 캐슬' ('스카이 캐슬' *23.8%)을

SBS 금토드라마 '하이ENA' 10.7%~14.6% 기록 자체 최고 시청률로 증명

뛰어넘는 것은 물론, 30% 돌파까지도 가능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SBS TV 금토 드라마 '하이ENA'는 같은 날 10.7%~14.6%를 기록, 자체 최고 시청률로 증명했다.

정금자(김혜수 분)와 윤희재(주지훈)가 법조계 약의 카르텔 정점에서 있던 송 & 김 송필증(이경영)과 이송그룹 후계자인 하찬호(지현준)를 무너뜨리는 속 시원한 결말로 끝이 났다.

'하이ENA'는 전문적인 장르극이 많아지는 한국 드라마의 흐름을 거스른 작품이다. 보통 법정 장르극이 꼼꼼한 자료 조사를 토대로 법조인들의 직업 자체를 이야기 소재로 삼는다면, '하이ENA'는 배정만 로펌인 뿐이지 변호사들이 연애하는 드라마에 가까웠다.

장르 장점인 몰입도와 사실감 대신 김혜수와 주지훈의 케미스트리를 전면에 내세우다 보니 이야기에 힘이 없어서 중간 유입 시청자가 없는 한계를 낳기도 했다.

그럼에도 1회부터 마지막 방송까지 꾸준하게 10% 안팎의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는 시청률을 유지한 것은 배우들의 연기력과 정금자라는 독특한 캐릭터 덕분이다.

김혜수가 연기한 정금자는 한국 드라마에서 보기 힘든 여성 캐릭터였다. 성공과 돈을 위해서라면 더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엄연히 변호사임에도 불법적인 일에도 손을 댄다. 여기에 주지훈이 연기한 윤희재의 '온실 속 화초 같은 엘리트'라는 속성이 더해지니 성별에 따른 고정 역할을 뒤집는 쾌감이 느껴지는 작품이었다.

'하이ENA' 후속으로는 김은숙 작가의 '더 킹 : 영원의 군주'가 오는 17일부터 방송된다.

“남성 4중창 뽑는 서바이벌 ‘팬텀싱어3’ 집으로 찾아오는 가장 좋은 공연장이죠”

프로듀서 자격 참여 옥주현



옥주현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팬텀싱어3’부터 프로듀서로 참여해 온 윤상은 “정말 놀랄 게 많은 시즌이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다”며 “성악 비전문가

포르테 디 콰트로, 포레스텔라 등 인기 크로스오버 그룹을 탄생시킨 JTBC ‘팬텀싱어’가 시즌3로 돌아왔다.

지난 10일 밤 9시 막을 올린 ‘팬텀싱어3’는 독일 베를린, 영국 런던, 미국 뉴욕 등지에서 글로벌 오디션을 개최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예고, 기대감을 모았다. 성악과 뮤지컬로 편성되는 듯한 음악 장르도 이번 시즌에선 모집 대상을 팝, 록, 힙합, 재즈, 민요, 라틴 등으로 대폭 넓혔다.

이번 시즌부터 프로듀서 자격으로 참여한 옥주현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작 발표회에서 “소리 안 나는 달콤한 초콜릿을 먹으며 이 방송을 보면 정말 황홀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공연을 못하는 시기지 않나. ‘팬텀싱어’는 집으로 찾아오는 가장 좋은 공연장이 될 것”이라 밝혔다.

옥주현과 새롭게 합류한 김이나 작사가는 “이전까지는 취향에 맞게 익숙한 그릇으로 새로운 것을 담아 먹는 형태로 음악을 감상했다면 ‘팬텀싱어’를 통해서 새로운 그릇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저는 어떤 종류의 선입견이 깨질 때까타르시스를 느끼고 세상이 확장되는 체험을 한다. 무대를 보시고 나면 시청자들도 예전과는 다른 것들이 보이고 들리지

자임에도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올까 놀라운 분이 많았다. 크로스오버를 이해하고 있는 싱어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관련 포인트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참가자들도 다양하지만 새 프로듀서들의 합류로 프로듀서들의 의견도 어느 때보다 다양하다”며 “음악을 30년간, 그간 무엇을 놓쳤는지 저 스스로도 다시 공부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희정 PD는 “실제로 매우 많은 참가자들이 ‘팬텀싱어’가 꿈의 무대라는 얘기를 하시더라”며 “‘팬텀싱어’는 방송을 넘어 공연 쪽에도 새로운 가치 구실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간접한 분들이 많은 만큼 허투루 하고 있지 않다. 이분들이 또 다른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청자들에게서도 새로운 크로스오버 그룹의 탄생을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하하, 유튜브 ‘하하 PD’ 개설...중년 히어로극 선보인다

가수 겸 방송인 하하가 개인 유튜브 채널 ‘하하 PD’를 개설하고 자체 제작 콘텐츠를 선보인다.

소속사 판엔터테인먼트는 최근 “하하 PD”의 첫 번째 콘텐츠로 장장 1년에 걸쳐 제작한 ‘대디프리(DADDY FREE)’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디프리’는 하하가 20년지기 친구들

과 만든 중년 히어로극으로, 전성빈 영화 감독과 배우 안세호, 용석주, 안현빈과 김도정 작가, 개그맨 강재준 등과 함께했다.

하하는 “조기축구회처럼 일주일에 한번 만나서 준비하느라 오래 걸렸다. 연결도 튀고 어설피기도 하지만 귀엽고 재밌게 바랄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나쁜사람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맛 좀 보실래요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365:운명을 거스르는 1년(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5 착한 소비 프로젝트 우리 함께	00 계약우정(재)	00 12 MBC 뉴스 20 호기심대장 키토 50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00 구르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전국 TOP 10 가요쇼(재)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UHD 승터 55 착한 소비 프로젝트 우리 함께	20 착한 소비 프로젝트 우리 함께 30 개는 훌륭하다(재)	20 헬로키즈 글로벌 동물 뉴스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연중기획-빛고을행복이카데미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나쁜사람(재)	00 뉴스브리핑
3	30 미니다Q 55 UHD 승터(재)		00 2020 총선 특집 시사건건	00 차종우돌 만국 유망기 스페셜
4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TV는 사랑을 싣고(재)	00 5 MBC 뉴스 3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SBS 오뉴스 35 KBC저녁뉴스 5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방송연설-이용주(무소속)
5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30 오매! 전라도	00 특선다큐 생명의 대륙, 남극 55 시사터치! 따따부따(재)
6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루기	50 위험한 약속	35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7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0 옥탑방의 문제아들	55 365:운명을 거스르는 1년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8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00 계약우정	05 스트레이트	40 아무도 모른다
9	00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연설 (기독자유동일당) 10 가요무대		00 리얼연애 부러우면 지는거다	00 제21대 총선방송연설 민생당 05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0	10 더 라이브 5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 개는 훌륭하다	30 MBC네트워크특선	25 나이트 라인 55 앙코르 고향견문록 스페셜
11	10 저널리즘 토크쇼 J(재)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12				

EBS1

07:00 꼬마버스 타요	12:30 지식의 기쁨(재)	17:45 세미와 매직큐브
07:15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	13:00 EBS 다크프라임	18:00 생방송 톡톡! 보니 하니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3:50 상어즈:시대와 함께 울고 웃다	19:00 형사 가제트
08:00 당동명 유치원	14:40 마사와 곰	19:30 최고대! 호기심딱지
08:30 출몰! 슈퍼윙스	14:55 뽀로로와 노래해요(1)(재)	19:45 자이언트 팽TV
09:00 픽시	15:00 오드뎃, 이상한 아이들	20:00 세계의 눈
09:30 페파 피그	15:10 꼬마버스 타요(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5:25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재)	〈이것이 진짜 서아프리카 -원색의 유혹, 세네갈〉
10:30 한국기행	15:40 뽀롱뽀롱 뽀로로(재)	21: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55 꼬마히어로 슈퍼재(재)	〈돌고 돌아 행복 1부 그래도 봄날은 오네〉
11:20 세계테마기행	16:10 픽시(재)	21:50 EBS 다크프라임
12:00 EBS 정오뉴스	16:40 당동명 유치원(재)	22:40 아생의 세렝게티
12:10 경이로운 지구	17:00 EBS 뉴스	23:30 경이로운 지구
12:25 세상의 모든 법칙	17:20 출몰! 슈퍼윙스(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13일(음 3월 21일 丙戌) ☎ 010-9790-8237

<p>子</p> <p>36년생 대화로써 풀어나가야만 할 것이다. 48년생 돈이 관건이다. 60년생 거시적인 관점이 용이하다. 72년생 대세를 거스르는 것은 매우 불길하다. 84년생 중요하다면 번거롭더라도 특별히 처리해야 마땅하다. 96년생 문제점이 있다면 경향이 많은 이를 찾아가는 것이 유익하다.</p> <p>행운의 숫자 : 36, 50</p>	<p>午</p> <p>42년생 의외로 앞장져서 진행 될 수도 있는 대국이다. 54년생 눈에 띄지 않게 비밀리에 조용히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 라 하겠다. 66년생 무난하게 진행되면서 안정을 찾게 된다. 78년생 양자를 비교해보면 즉시 알 수 있으리라. 90년생 인식을 달리한다면 일취월장한다. 02년생 밤심하다가는 예정 되었던 귀도를 이탈하리라.</p> <p>행운의 숫자 : 42, 66</p>
<p>丑</p> <p>37년생 투명해야만 관계가 유지될 것이다. 49년생 부수적인 것은 처치하고 핵심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61년생 기대는 거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73년생 사공이 없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법이다. 85년생 자기모순에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리라. 97년생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말라.</p> <p>행운의 숫자 : 30, 81</p>	<p>未</p> <p>31년생 마음에 걸리더라도 집착하지 말고 대범하게 넘어가야 할 때이다. 43년생 중론에 좌우 되지 말고 소신껏 판단하라. 55년생 편견 없는 발상이 성사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67년생 마음만으로는 무의미하니 여건 조성부터 하고 보라. 79년생 끌려 당하지 말고 주체적이어야만 한다. 91년생 중대사를 진지하게 삼의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33, 89</p>
<p>寅</p> <p>38년생 마음을 비우면 그만이다. 50년생 목표를 향해서 발돋움 하게 된다. 62년생 복잡한 상황이 반복되어 혼란스럽겠다. 74년생 습관적인 반복보다 창의적인 시도가 낫다. 86년생 의식의 전환이 용이하다. 98년생 반드시 순리대로 처리해야만 한다.</p> <p>행운의 숫자 : 98, 51</p>	<p>申</p> <p>32년생 하나가 여러 가지 기능으로써 작용하게 될 것이다. 44년생 제반 요소들이 결집되어 활성화 단계에 이른다. 56년생 포괄적인 개념으로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낫다. 68년생 지속적인 노력이 경주된다면 반드시 부귀가 따르겠다. 80년생 중대를 가진 일관된 언행이 아쉽다. 92년생 과격적인 조지를 취해야 할 때이다. 행운의 숫자 : 15, 55</p>
<p>卯</p> <p>39년생 관점을 달리한다면 기회로 연결시킬 수 있는 소지가 크다. 51년생 표현의 방법과 기교에 정성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63년생 중차대한 때에 번거롭음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발생한다. 75년생 미연에 대처한다면 화도 막을 수 있다. 87년생 노력에 비해 대가가 를 수 있다. 99년생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해야만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09, 52</p>	<p>酉</p> <p>33년생 바야흐로 성공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다. 45년생 보완하지 않고 가만히 문턱 손해로 이어질 것이다. 57년생 기대해 왔던 바가 허망해지는 처지이니라. 69년생 추진 력이 향상 될 것이다. 81년생 세심하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 결정적인 시기에 무너져 내린다. 93년생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8, 99</p>
<p>辰</p> <p>40년생 직접적인 것에 집중함이 장래성도 있고 실용적이다. 52년생 거침없는 행보를 내딛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느니라. 64년생 국면의 전환이 효과적이다. 76년생 넘어 가려하지 말고 밝혀야만 하느니라. 88년생 반드시 하나하나씩 점검해 봐야 할 시기이다. 00년생 아직 실행의 시기가 도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때다. 행운의 숫자 : 27, 76</p>	<p>戌</p> <p>34년생 겸손하다면 더 존귀한 위상에 놓인다. 46년생 문제 점을 발견하는 즉시 보완하라. 58년생 일의 순서보다 양에 중점을 뒀어 할 때가 되었다. 70년생 무리하게 행하려 한다 면 하지 않을 못 하다. 82년생 공물여야 한다. 94년생 문제점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40, 97</p>
<p>巳</p> <p>41년생 얼마나 근사치에 접근하느냐가 성패의 관건이 되리라. 53년생 표현의 방법과 기교에 정성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65년생 내버려 두어도 자연스럽게 풀리는 형상이다. 77년생 믿음이 간다면 선택해도 무방하다. 89년생 계획 대로 조처한다면 성공의 길을 이끄는 열쇠가 보인다. 01년생 생 집착한다면 부작용이 나타난다. 행운의 숫자 : 26, 95</p>	<p>亥</p> <p>35년생 걱정할 필요 없으니 마음 폭넓고 있어도 된다. 47년생 본래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결과에 이른다. 59년생 지나치다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라. 71년생 힘들 었을 때 근력 운동이 되는 원리를 알라. 83년생 유혹에 휘말 린다면 여러 가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95년생 한계선을 경시한다면 수습하기 어려워진다. 행운의 숫자 : 48, 61</p>